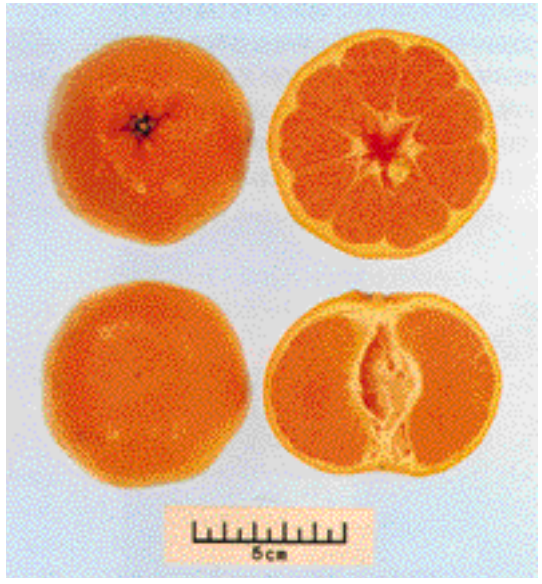
춘견(春見, 하루미)



▲ 춘견

1. 육성경위

춘견(春見)은 일본 농림성 과수시험장 감귤부에서 조숙하고 식미가 좋은 밀감 품종을 목표로 하여 육성한 것으로 1979년 5월 「청견」을 종자친으로 「폰깡 F-2432」 품종을 화분친으로 교배시킨 것이다. 「청견」은 과실품질이 좋고 웅성불임성(雄性不稔性)을 갖는 무핵과(씨가 없음)이지만 껍질벗기기가 어려워 먹기에 불편하다. 한편 폰깡은 조숙하고 껍질벗기기가 쉬우며 식미가 좋지만 종자가 많고 바람들이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점과 온도요구량이 높기 때문에 적응성이 좁고 또한 수량이 적다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춘견의 과실

「F-2432」는 제2차대전 이전에 대만에서 일본 가고시마현(鹿兒島縣) 과수시험장에 도입된 품종으로 「부지화(不知火)」와 「양향(陽香)」도 「청견」×「폰깡」 조합에서 육성된 것이지만 화분친으로 이용한 폰깡 품종은 「중야3호(中野3號)」이다. 1986년에 처음 결실이 맺어져 그후 조사에 의해 1991년에 1차 선발되었고 동년 제7회 계통적응성·특성검정시험에 흥진 44호로서 공시되었다. 그 결과 우수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1996년에 「춘견(春見, 하루미)」이라고 명명, 밀감 농림12호로서 등록되어 공표하였고 동년 12월 품종등록을 신청하였다.

2. 주요특성

나무 수세는 중간정도로 어릴 때의 나무 모습은 약간 직립성을 띠며 가지와 순은 약간 밀생한다. 가시는 적고 거의 소실되어 있다. 잎의 크기는 청견과 폰깡의 중간정도로 양품종보다 둥근편이다. 꽃은 단생으로 유엽화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창가병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으며 궤양병에는 중간 정도 이상의 저항성을 갖는다.

과실 과실크기는 190g 정도로 착과량이 적으면 대과로 되지만 과피가 두껍고 거칠게 되며 또한 과육도 거칠고 단단하게 되어 현저하게 과실품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190g 정도의 크기가 바람직하다. 과실모양은 편구형으로 과형지수는 120 정도이다.

과피는 황색이며 과면은 매끈하고 박피성이 좋다. 과피의 착색은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시작, 12월 하순에는 완전착색이 된다. 과육색은 황색으로 과즙량은 중간정도이다. 향기는 중간정도의 폰깡향이 있고 먹는 느낌은 폰깡과 비슷하다. 속껍질(양낭피)은 얇아 부드럽고 과즙이 흘러내리거나 입안에 남는 느낌이 적어 먹기 쉽다. 맛이 담백해지는 현상은 적지만 과실의 숙도가 진행되면 부피발생이 보인다. 당도는 13 °Bx, 산함량은 1월에 1% 정도가 되어 식미는 양호하다. 종자수는 평균 2~3개로 적으며 씨가 없는 과실도 생겨난다.

3. 재배상의 유의점

결실성은 좋고 풍산성이라고 생각되지만 해거리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적정한 토양관리, 결실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착생한 꽃에 열매 맺음이 좋고 또한 초기비대가 극히 양호하여 과실비대기에는 잎이 누런색을 띠며 수세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게 보인다. 또한 여름과 가을철에 과도하게 건조한 경우 등 재배환경에 따라서는 당도가 15 °Bx 정도로 되지만 동시에 산함량도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어 산함량 감소가 큰폭으로 늦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관수를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성숙이 진행되어 가면 부피가 발생하고 또한 과피가 얇아 장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숙기가 1월로 비교적 조숙계이고 폰깡과 비해 과실비대도 양호하기 때문에 폰깡재배에 약간 불리한 지역에서의 도입이 가능하며 제주지역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감귤주산지에 속하기 때문에 노지재배로서는 하루미 품종의 고유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하우스 재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